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5(土)	16(日)
흐리고 가끔 비 20 / 24℃	흐리고 비 20 / 24℃

- News**
- 신정아 의혹 전방위수사 ②
 - 서광주농협 선거 돈봉투 ③
 - 장수 풍덩이로 부농 꿈 ④

- Jeollado**
- 그 사람-이효계 前 시장 ⑦



- Entertainment**
- 이젠 중국 드라마가 뜬다 ⑧
 - 추석영화 절대감자 없다 ⑨

Wellbeing

- 식품 탐구-참깨 ⑬

유형별 대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buniv.ac.kr

세계로 뚫어가는 대학
진남과학대학
www.jnsc.ac.kr

뮤지컬 '캣츠'가 바꿔놓은 공연문화



13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린 '캣츠'를 관람한 관객들이 공연 후 기립박수를 보내며 환호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16일까지 계속된다. /위직림기자 jnwi@kwangju.co.kr

환상적인 춤·노래에 문화 갈증 푼 관객들

명품 공연, 기립박수로 답했다

지난 7일부터 광주문예회관에서 공연중인 오리지널 뮤지컬 '캣츠'가 광주 공연 문화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와 대전, 김해 등 다른 지방도시들이 지금까지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맘미아'와 영국로열발레단 공연 등 대형 작품들을 꾸준히 무대에 올려왔던 데 반해 광주의 경우 공연장 여건과 시장성 등을 이유로 대형 공연 유치가 거의 없었던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리지널 뮤지컬 '캣츠' 팀의 10일만에 이르는 장기 공연은 수준 높은 작품에 대한 지역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시켜준 좋은 기회였다.

관객들 역시 매회 배우들의 연기와 춤, 노래에 열정적인 환호성과 기립박수를 보내며 배우들을 격려하는 등 성숙한 관람문화를 보여줬다.

14일 현재 뮤지컬 '캣츠'가 동원한 관객 수는 1만3천여명에 이르며 관객층도 다양

배우들 객석 분위기 대만족

"열광적인 관객 덕에 힌나"

좋은 공연 자주 있었으면...

하다. 뮤지컬의 주고객층인 20~30대 여성과 가족 관객, 연인들이 극장을 찾았으며 공연장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중년 부부들도 눈에 많이 띄었다.

또 서울, 대전,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캣츠' 마니아들의 발길도 이어졌으며 각종 모임과 직장 등에서는 단체로 티켓을 구입,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직원 10명의 티켓을 구입한 박민자(47·광주시 서구 처평동)씨는 "유치원에서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 관람을 추진했다"며 "광주에

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오리지널 팀 공연이라 더 즐거웠다"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극장을 찾은 김성철(43·광주시 북구 문화동) 씨는 "보고 싶은 작품이 광주에서 공연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서울로 원정관람을 가 '노트르담 드 파리' 등을 관람했었다"며 "광주에서도 '캣츠' 같은 공연이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립 팀 터거 역의 로웬 브라운(27)은 "광주 관객들을 포함한 한국 관객들은 공연 중간 중간에도 열정적인 환호성을 보내는 등 세계 어느 나라 관객들보다 열광적이어서 공연하는 데도 힘이 난다"고 말했다.

이번 광주 공연은 16일까지 계속된다. 공연티켓은 인터파크(ticket.interpark.com)와 티켓마루(ticketmaru.co.kr)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구입 가능하다. 문의 1588-07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여수, 좋은 반응 얻었다"

세계박람회기구 사무총장

여수엑스포 심포지엄서 밝혀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70여 일 남겨두고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여수엑스포 국제심포지엄'에서 BIE(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 관계자들이 여수의 박람회 유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구 온난화와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BIE 회원국 장·차관과 BIE 대표 등 해외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빈센테 곤살레스 로세르탈레스 BIE 사무총장은 14일, 심포지엄 폐회식을 앞두고 진행된 총평 기자회견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긴급히 해결해야 할 지구온난화 문제를 부각시켰고, 특히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섬 국가를 비롯한 여러 참가국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여수가 지속적으로 세계엑스포 개최를 위한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나라와 관계도 잘 맺어야 한다"면서 "여수는 더 열려 방문자와 참가자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며, 그에 맞는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무원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관세에 대해 "부동층 국가들 가운데 상당수가 2012년 세계엑스포 개최지로 여수를 지지하기로 인식을 같이한 상태"라며 "전반적인 관세는 모로코, 폴란드 등 경쟁국들보다 우리가 조금 앞서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BIE대표 등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15일 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여수를 방문한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전세기 편으로 여수공항에 도착한 뒤 광양 마린센터와 광양제철을 시찰하고 순천 낙안읍성과 순천만을 둘러본다. 대표들은 다시 여수로 이동해 신항 2부두에서 박람회 준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오후에 여수에서 열린 환영행사에 이어 오현섭 여수시장 초청 만찬에 참석한 뒤 전세기편으로 서울로 떠난다. /총평기자 redplane@kwangju.co.kr

태풍 '나리' 17일 한반도 상륙

광주·전남 내일 영향권

11호 태풍 '나리'(NARI)가 북상하면서 16일부터 광주·전남지역은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나리'는 14일 오후 3시 현재 반경 200km의 소형급이지만, 최대 풍속이 초속 44m에 이르는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다.

태풍은 시속 22km의 속도로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16일 오후께 서귀포 남쪽 210km 해상까지 진출한 뒤, 17일께 부산 남서쪽 150km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지역은 16일부터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화요일인 18일까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며 "영향권에 들기 전인 15일에도 저기압의 영향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60~12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다.

올 여름철 발생했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멸한 것에 비



해 '나리'의 경우 우리나라에 상륙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한편 강풍으로 악명을 떨친 '매미'는 추석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2003년 9월12~13일 우리나라를 강타, 130명의 인명피해와 4조7천810억원의 재산피해를 냈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 세기보청기
미세한 소리는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 기호로도 한번 물어주세요.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dogstar.co.kr

무엇보다도 세기스타·세기보청기
상담전화 1588-8499 | 080-222-0100